

# 비금융권 대출 5조...광주 중기, 재정 안정성 우려

### 증가율 42.5% 전국 세번째...신협 37%로 최고 전남 중기 대출금도 6조4812억 '역대 최고'

광주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비금융권으로부터 5조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에 금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전년보다 무려 42.5% 뛰었으며, 이 증가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1금융권의 틈새를 겨냥한 전략으로 2금융권 대출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국의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액은 광주 5조34억원·전남 6조4812억원 등 11조48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중소기업이 비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해마다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 1조2885억원이었던 광주 대출액은 1조9164억원(2016년)→2조7217억원(2017년)→3조5115억원(2018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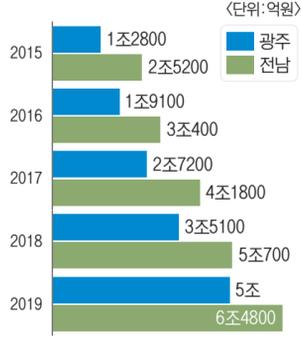
전남 중소기업도 2조5225억원(2015년)→3조479억원(2016년)→4조1801억원(2017년)→5조786억원(2018년) 등을 비금융권으로부터 받았다.

특히 광주 중소기업의 비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42.5%(1조4919억)로 전국 평균 증가율 28.8%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45.5%), 대구(4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 증가율은 27.6%로 9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액 증가율이 광주 8%·전남 5.8%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 중소기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 (단위:억원)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광주 중소기업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의 10분의 7은 신협과 상호금융에 몰렸다.

광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대출받은 곳은 신협으로 전체 대출금의 37%에 달하는 1조8469억원을 빌려왔다. 상호금융

(31%·1조5559억원), 새마을금고(17.4%·8681억원), 상호저축은행(10.3%·51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 중소기업은 비금융권에서 주로 상호금융 문을 두드렸다. 비은행기관 대출 비율 가운데 상호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66.6%(4조314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협(16.4%·1조650억원), 새마을금고(16.2%·1조513억원), 상호저축은행(0.6%·421억원)이 뒤를 따랐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액은 함께 늘었다"며 "지역 비금융권에서는 주로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 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00%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6.77 (-26.84) ↓ 금리(국고채 3년) 1.14 (-0.04)
- ↓ 코스닥 654.63 (-2.32) ↑ 환율(USD) 1216.90 (+6.60)



## '화순5차 한국아트리움 센템브릿지' 28일 홍보관 오픈

### 교육 인프라 우수 '숲세권' 84㎡ 단일구성 4-Bay 구조

화순에 초고층 스카이크뮤니티 아파트 '화순5차 한국아트리움 센템브릿지'가 들어선다.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화순5차 한국아트리움 센템브릿지는 이달 분양을 앞두고 지역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화순읍이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향정리 일대에 국비 등 총 180억원이 투입돼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바이오-메디컬 특구 등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지역 내 신규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가치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게 한국아트리움 측의 설명이다.

센템브릿지가 들어서는 화순은 차량으로 30분이면 광주를 오갈 수 있고, 인근에 화순군청, 농협하나로마트, 고인돌전통시장, 화순전남대병원, 시외버스정류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고, 무등산과 남산공원, 서당산이 가까워 이른바 '숲세권'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화순5차 한국아트리움 센템브릿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주거선호도가 높은 84㎡ 단일구성에 4-Bay 역신설계 구조를 갖췄다.

특히 화순 중심의 최초 초고층(예정) 아파트 스카이크뮤니티 아파트로, 단지 최상층(39층 예정)에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스카이 휘트니스, 맘스카페, 테라스카페 등 시설이 들어오며, 1층 필로티에는 파티룸, 미팅룸 등 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된다.

화순5차 한국아트리움 센템브릿지는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홍보관은 오는 28일 화순군 화순읍 칠층로 140에 열 예정이다. 문의 062-372-2004.

백희준 기자 pboxer@kwangju.co.kr

## 대우위니아그룹, 지난해 실적 호조

### 대우에이텍 16% 증가 매출 1조2천억, 위니아딤채 흑자 전환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의 지난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위니아그룹은 26일 전장 계열사 대우에이텍, 대우플러스, 대우에이피와 가전 계열사 위니아딤채 등 4개 상장사의 작년 실적을 발표했다.

자동차 시트 전문 생산기업인 대우에이텍은 전년 대비 16.1%(1792억원) 증가한 연결실적 1조 28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신차 매출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7%나 증가한 326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1999년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한 대우에이텍은 현재 국내 주요 완성차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대우위니아는 설명했다.

대우플러스도 매출액 53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6억원 가량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스티어링 휠 부문과 알루미늄 휠 부문의 이익개선으로 영업이익도 395억원으로 8.7% 향상됐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딤채는 7451억원의 연결기준 매출과 22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무려 33.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전

환했다.

또 계절 가전에서 사계절 가전으로 자리를 잡은 김치냉장고 탑재의 판매증가와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 확대, 에어가전 및 생활가전의 품목 다변화가 실적 향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위니아딤채의 흑자전환은 위니아대우(구 대우전자) 인수 2년째를 맞은 시점에 인수 시너지 효과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효율화를 위해 양사가 각각 보유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위니아대우의 해외법인 합병을 통해 고정비를 낮추는 등 노력으로 실적을 개선했다는 게 대우위니아의 설명이다.

자동차 조향장치를 생산하는 대우에이피도 매출 1575억원과 영업이익 10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보다 360억 가량 줄었으나, 전장 계열사로서 부가가치 창출에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우위니아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니아대우가 위니아딤채와의 시너지로 흑자전환이라는 유의미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각 분야에서 최고 성장을 이룩한 계열사들의 상승으로 그룹 전체가 밝은 청사진을 그리는 올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전남대 발전기금 1억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은 지난 25일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에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본부세관, 중기 수출입 지원 공익관세사 무료 상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무료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공익관세사는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 등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과 관련된 종합컨설팅을 전화 상담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공할 예

정이다. 광주에 1명을 비롯해 대전 1명, 제주 2명 등 4명이 배치된다.

특히, 광주본부세관은 공익관세사와 연계한 합동컨설팅으로 종합적인 전문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익관세사의 컨설팅 관련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화(062-975-8195)로 문의하면 된다. 백기용 기자 pboxer@

##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 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6대 회장 선거에서 류재선 회장(보성 ㈜금강전력·사진)이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 선거 개표를 벌여 류 회장의 당선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자 1만4872명 중 8630명이 투표(총 투표율 58.03%)한 이번 선거에서 류 회장은 4339표(50.28%)를 얻었다. 김영창 후보(동원전력)는 3408표(39.49%), 김갑상 후보(㈜상화전력)는



883표(10.23%)를 받았다. 선거는 20~21일 이틀 간 모바일 인터넷 투표로 진행됐다. 류 회장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3년간 회원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만 7000여 회원은 모두 하나이기에 협회 100년 미래를 위해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전기공사업의 부흥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